

# 濟州島의 童子石 研究

— 分布와 形態를 中心으로 —

姜 彰 彦

## 目 次

|                 |                      |
|-----------------|----------------------|
| I. 序            | V. 表現되는 物質           |
| II. 時代的 背景 및 信仰 | VI. 美術學的 側面 및 信仰의 意義 |
| III. 分布와 位置     | VII. 結 論             |
| IV. 形態 및 細部的 樣相 |                      |

## I. 序

濟州島 民墓 中에서는 아이의 形態를 한 石像이 세워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일컬어, 童子石<sup>1)</sup> · 童子像<sup>2)</sup> · 地神<sup>3)</sup> · 무석<sup>4)</sup> · 子石<sup>5)</sup> 등으로 불리우고 있

- 1) 濟州島 全域에서 보편적으로 稱함.
- 2) 濟州市와 城邑里에서 불리움.
- 3) “산지키는 것”, “귀신 위하는 것” 등으로 불리우고 있어 필자 나름대로 정리한 이름임을 밝혀둠.
- 4) 《제주의 마을》. ①—道頭里, 1985, p. 45.
- 5) 翰林邑 明月里, 涯月邑 郭支里 등에서 불리움.

다. 그 중에서 대부분 童子石이라 불리우는 경우가 많으므로, 本稿에서는 童子石이라 表記하기로 하였다.

本調査는 墓의 돌레를 쌓는 산담<sup>6)</sup>과 墓의 띠로 인하여, 墓마다 직접확인 방법과 띠를 베어내는 伐草時期<sup>7)</sup> 선택 方法 등으로 調査하였다. 기간은 '85년부터 '89년까지 매년 가을에 주로 실시하였다.<sup>8)</sup> 그 결과 약 250餘基의 石像을 찾아 볼 수 있었으며, 확실한 童子石 약 200餘基를 調査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 學術的으로 究明하기 위하여, 실제 墓에 現存하는 것을 중심으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童子石 33基와 濟州大學校 博物館에 所藏된 3基, 濟州民俗自然史博物館의 1基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本稿에서는 童子石의 分布와 形態에 중점을 두고 알아보는 한편, 歷史的 背景과 細部的 樣相 및 信仰의 意義를 論하여 보고자 한다.

## II. 時代的 背景 및 信仰

童子石의 理解를 돕기 위하여 先史時代에서 歷史時代에 이르는 濟州島의 時代的 背景과 濟州人의 信仰을 簡略하게 再考해 볼 必要가 있을 것 같아 言及해 두고자 한다.

### 1. 先史時代

濟州島에서의 人間의 痕跡은 舊石器時代의 빌레못 동굴<sup>9)</sup>을 비롯하여, 中石

- 6) 濟州島의 墓들은 대부분 돌로 쌓은 울타리를 하고 있는데, 소나 말, 산불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는 목적에서이다. 높이는 대략 50~100cm, 너비 100cm 전후하는 규격을 하고 있다.
- 7) 濟州島에서는 墓의 잡초를 제거하는 기간을 伐草時期라 하는데, 陰歷 8月1日을 전후하여 약 5일 사이에 이루어진다.
- 8) '85년부터 '89년까지 現地 調査는 토요일·일요일·국경일에 준하여서 실시하였음을 밝힌다.
- 9) 1973年 3月 濟州大學校 朴行信 교수가 빌레못 동굴을 再調査할 때 갈색곰뼈

器時代의 高山里 遺跡<sup>10)</sup>, 新石器時代의 北村里遺跡<sup>11)</sup>, 青銅器時代의 山尹水洞 遺跡<sup>12)</sup>, 鐵器時代의 龍潭洞 遺跡<sup>13)</sup> 및 濟州島 一帶의 遺物散布<sup>14)</sup> 등에서 그 脈絡을 찾아 볼 수 있다.

## 2. 歷史時代

先史時代末과 歷史時代初에 이르러 濟州島는 하나의 國家로 成立되어 있었으며<sup>15)</sup>, 濟州島를 中心으로 한 近接 國家들과 直·間接的인 交流가 있었다.<sup>16)</sup> 그들은 濟州島를 島夷<sup>17)</sup>·毛羅<sup>18)</sup>·牟羅<sup>19)</sup>·瀛洲<sup>20)</sup>·涉羅<sup>21)</sup>·耽牟羅<sup>22)</sup>·擔羅<sup>23)</sup>

의 化石과 塔形석기, 골각기 등을 수집하였다.

- 10) 李清圭, “高山里 遺跡” 《耽羅文化》第九輯, 耽羅文化研究所, 1989, pp.
- 11) 濟州大學校博物館, 《北村里 遺蹟》, 1988.
- 12) 1988年 濟州大學校 博物館에 의하여 發掘調査가 되었는데 BC. 6~1C에 이르는 青銅器時代 遺跡임을 확인하였다.
- 13) 濟州市, 濟州大學校博物館 《濟州市 龍潭洞 甕棺發掘調査報告》, 1989.
- 14) 濟州大學校博物館, 《濟州島遺蹟》, 1986.
- 15) 三國志의 韓傳과 後漢書의 東夷傳 等에는 “州胡”라 稱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전부터 어떠한 國家形態를 갖추었다고 思料되며, 故 金泰能先生도 「州胡人の 社會는 不幸스럽게도 一世紀中의 어느 年代에 濟州火山爆發의 慘禍를 만나 一朝에 滅亡되어 버린 것으로 推定되는 것이다」라고, 濟州島史論攷(1982)에 記述하고 있으며, 濟州島 先史遺物 散布地 等에서의 다량의 無文土器片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 16) 1928年 8月末頃에 濟州市 山地港口 採石場의 石山속에서 熔岩으로 密閉된 洞窟이 나타났는데(金泰能, 濟州島史論攷, 1982, p.11) 銅鏡 2점, 劍의 부속 장식 1점, 五株錢 4점, 貨泉 11점, 大泉五十 2점, 貨布 1점 등이 出土되었다. (濟州大學校 博物館, 《濟州島遺蹟》, 1986, pp.139~141.) 이 銅製遺物들은 新의 王莽때인(A. D. 8~23) 것들로 알려지고 있고, 五株錢은 前漢의 武帝(제위 B. C. 141~87)때 製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 17) 《史記》, “尙書地志”
- 18) 《地理志》
- 19) 李元鎮, 《耽羅志》
- 20) 《瀛洲誌》
- 21) 高句麗 本紀 ‘黃金出自扶餘珂則涉羅所產…’
- 22) 李元鎮, 《耽羅志》
- 23) 《唐書 東夷傳》擔羅條

州胡<sup>24)</sup>·耽浮羅<sup>25)</sup>·耽羅<sup>26)</sup> 등으로 불렸다. 또한, 周邊國들이 強大해짐에 따라 直·間接的으로 支配 影響도 따랐었다.<sup>27)</sup>

濟州島가 우리나라(高麗)에 隸屬된 것은 高麗 肅宗 10年(1105)부터이다.<sup>28)</sup> 朝鮮朝에 이르러 太祖 元年부터 本土의 行政 및 文化가 急激히 들어 오면서<sup>29)</sup> 濟州島의 文化는 새로운 文化와 並列 또는 合流되기에 이르렀다.<sup>30)</sup>

### 3. 濟州人의 信仰

濟州島人들의 信仰의으로 나타나는 痕蹟은 濟州市 龍潭洞 甕棺墓 遺跡<sup>31)</sup>에서 찾아 볼 수 있다. '84年 당시 發掘에 의하면, 甕棺이나 石槨의 方向은 거의가 正東·南東·北東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濟州島의 土俗信仰의<sup>32)</sup> 또는 사

24) 《三國志》, “馬韓傳”, 有州胡在馬韓之西海中大島…

25) 《韓昌黎集》“送鄭尚書序”如流求浮南耽浮羅…

26) 《高麗史地理志》“耽羅縣條”

27) 高麗 肅宗 10年(1105) 耽羅國이 郡으로 개편되었고, 元宗 14年(1273)에는 蒙古의 達魯花赤總管府가 설치된다. 그 전의 三國 等の 直·間接的인 支配 影響도 있었다.

28) 金錫翼 《耽羅紀年》

29) 朝鮮太祖元年부터 鄉校가 세워지고 官軍들의 무예장인 觀德亭이 世宗 30年에 세워졌으며, 많은 牧使 등을 파견한다.

30) 高麗末까지만 하여도 주검을 들이나 산에 내버려 두는 風習이 있었다. 朝鮮 初에도 온돌이 없었으며 信仰的인 면에서도 뱀을 모신다는 것 등은 새로운 外部文化에 쉽게 合流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예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31) '84年 12월에 發掘하기 시작한 濟州市 龍潭洞 墓遺跡 中에서의 石槨 1基를 말함(濟州大學校博物館, 《龍潭洞 甕棺墓發掘調查報告》, 1989. 參考)

32) 濟州島에서 행하여 지던 花盤祭나 燃燈祭 등이 歷史時代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原流는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아직 確實하게 알 길이 없다. 또한, 현재에도 행하여지는 新구간의 원류도 알 길이 없다. 確實한 것은 아니지만 濟州島의 原始信仰이 있었을 것으로 思料된다. 이러한 推測은 安昶範, 《民族思想의 源流—他道の 根源의 糾明》 1988. pp.166~167에서는 ‘우리 민족의 천신은 항상 옆에 있는 保護者요, 守護神이다. 그래서 환란을 당하거나 위급할 때는 無意識중에 하느님을 부르게 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天神과 神仙은 우리 민족의 源流的 神임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天과 地로 區分하여 位置的으로 본다면 “天”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면 濟州島에서의 神의

머니즘(shamanisin)의 태양崇拜思想을 지녔다고 봐야 될 것이다. 이를 信仰的으로 보는 것은 구슬·대팻날·창·도끼·장검·단검·중검·화살촉 등을 통하여, 당시 최고의 器具類의 埋葬方法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石槨墓 중에서 볼 수 있는 주검의 樣相은 東寢에 장검 2점, 허리 위치에 중검, 가슴 부위에 도끼와 창, 오른쪽 어깨 부위에 많은 화살촉 등을 濟州島人의 한 모습을 推定할 수 있는 것이었다. 信仰的으로 東寢에 많은 器具類의 埋葬은 영혼의 兩生 곧, 태양崇拜思想과 일치적인 意味를 內包하고 있기 때문이다.

歷史時代에 이르러 周邊國들로부터 直·間接的 影響에 의한 信仰的인 側面도 多少 流入이 있었을 것이다.<sup>33)</sup> 그렇지만 濟州島의 土俗信仰的 또는 샤머니즘的 信仰은 계속 이어져 내려 온 것으로 보인다.<sup>34)</sup> 新羅때부터 전하여지는 佛敎的 行事를 高麗때 耽羅國 星主가 參席하였다는 기록<sup>35)</sup>으로 보아 혹 新羅의 佛敎가 流入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濟州의 佛敎는 高麗 때에 본격적으로 流入된 것으로 보인다.<sup>36)</sup>

朝鮮朝에 이르러 본격적 支配와 더불어 儒敎가 들어 오면서 濟州島人들의 信仰은 급격히 變化되었다.<sup>37)</sup> 朝鮮時代의 여러 문헌에는 寺刹과 堂을 철회하였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다.<sup>38)</sup> 곧, 당과 절이 쇠퇴기에 접어 든 것이며, 儒敎

---

樣相은 어떠한가? 이의 記錄은 「耽羅誌」에서 나타나는데, 「耽羅在南海中厥初無人物也三神人從地湧出…」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의 神의 地的 出現은 東洋圈에서는 매우 보기가 힘든 일이었으며, 西洋圈에서는 地에서 出現한 神은 惡神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인 데 비해 濟州島에서는 善쪽에서 存在한다고 보는 바이다. 아울러 이에 따르는 어떠한 信仰 形態를 稱하여 土俗信仰이라고 하여 두는 것이다.

- 33) 秦元日·玄平孝·梁重海, “耽羅의 學藝·言語·宗敎의 研究”, 《濟州大學論文集》4호, 1971. pp. 41~47.
- 34) 濟州大學校博物館, 《水精寺·元堂寺地表調查報告》, 1988. pp. 6~7. (梁重海, “耽羅의 佛敎와 水精寺” 중에서 ‘耽羅의 原始信仰’ 參考)
- 35) 金錫翼 《耽羅紀年》 1918.
- 36) 法華寺址·水精寺址·元堂寺址 등을 調查하였지만 아직 新羅의 遺物이라 판 단되는 것이 發見이 안되었으므로, 確實한 것은 高麗時代인데 이는 陶磁器片 및 瓦片 등으로 推定한 것이어서 定立시키는 것은 아니다.
- 37) 朝鮮初부터 寺와 堂이 축소되거나 폐쇄되고 鄕校는 3곳에 세워진다.
- 38) 朝鮮中期를 前後한 時期에 몇몇 敎使들에 의하여 寺堂이 축소 또는 파손된다.

의 發展과 더불어 濟州島人의 信仰은 變化하여 가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耽羅紀年에는 「按撫使奇虞……又州俗無 主殮屍委諸溝壑者多到州飭州吏備棺槨使之欽葬…」라는 記錄이 있어서 이는 여러가지 意味를 內包하고 있다고 본다. 첫째, 조선조 초기까지 原始的 葬法을 하고 있다는 점, 둘째, 信仰的인 面에서 사머니즘·巫俗·佛敎·儒敎 등이 더불어서 계속 전해오고 있었다는 점.<sup>39)</sup> 셋째, 外來 信仰 또는 宗敎가 濟州島의 土俗의 信仰에 크게 影響을 주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들 수가 있다.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濟州島人의 信仰的인 面이나 文化的인 面에서 朝鮮朝 初期까지도 外部의 文化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는 점 등은 土俗的이거나 土俗的으로 變化한 어떠한 信仰이 있었지 않았나 한다.

### Ⅲ. 分布와 位置

#### 1. 分布

濟州島는 동서길이 73km, 남북길이 41km, 둘레 254km의 타원형 섬이다. 緯度上으로는 東經 126°10'에서 126°58', 北緯 33°06'에서 33°34' 사이에 있다. 面積은 1,820.05km로서 全國土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섬 가운데에는 海拔 1,950m의 漢拏山이 있다. 이 산을 中心으로 東西로는 緩慢한 傾斜를 이루고 있으며, 南北으로는 急傾斜를 이루고 있다.

濟州島 사람들은 漢拏山을 地理的 中心으로서만이 아니라, 精神的 中心體로서의 意味를 內包하고 있다. 즉, 漢拏山을 中心으로 하여 동과 서쪽에서의 領域的 住民生活은 거의 철저하다시피 이뤄지고 있다.<sup>40)</sup>

童子石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듯 하다. 濟州島 全域에 分布하고 있는 童子

39) 本稿의 美術學的 側面 및 信仰的 意義에서 記述

40) 漢拏山을 中心으로 하여 多少 文化의 차가 나타나고 있다. 농기구에서나 언어, 동자석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 檀紀4128年(1795)을 전후한 시기에 묘와 더불어 童子石도 만들어지지 않았나 한다.

材料는 多孔質玄武岩이다.

規格과 特徵은 아래와 같다.

규 격

| 방 향 | 높 이  | 가슴너비 | 가슴두께 | 얼굴높이 | 얼굴너비 | 비 고         |
|-----|------|------|------|------|------|-------------|
| 동   | 35.0 | 14.7 | 15.5 | 16.0 | 12.5 | 흙속에 약5cm 묻힘 |
| 서   | 35.0 | 16.5 | 15.0 | 16.0 | 14.5 | "           |

(단위 : cm)

특 징

| 위 치 | 얼 굴 |     |     |     | 손 위 치  | 손에든물건 | 두발 상태 | 비 고    |
|-----|-----|-----|-----|-----|--------|-------|-------|--------|
|     | 눈   | 코   | 귀   | 입   |        |       |       |        |
| 좌   | 양 각 | 양 각 | 양 각 | 음 각 | 가슴에서음모 | 없 음   | 땡기 머리 | 얼굴측면손과 |
| 우   | "   | "   | "   | "   | "      | "     | "     | 양호함    |

2) 舊左邑 下道里 童子石-1(寫眞 5.6)

北濟州郡 舊左邑 下道里 마을 서남쪽의 경작지에는 "學生高公之墓"가 있다. 墓의 方向은 북향이며, 碑石과 望柱石이 있는데 碑는 墓의 앞쪽 중앙에 세워져 있으며, 望柱石은 龜趺 위에 세워져 있다. 전체적으로 石物이나 산담이 잘 정리되어 있다.

童子石은 墓 앞 좌우에 2기가 마주보고 서 있다.

이 童子石들은 얼굴이 扁平하게 다듬은 상태에서 코만 돌출되어 있으며, 눈



濟州島의 童子石 研究

과 입은 陰刻으로 처리되었다. 귀는 유난히 크게 보이는데, 컷볼이 두터우며 길게 늘어진 탓이다. 손에는 十字架(?) 형태를 한 물건이 들리워져 있다. 또한, 사각의 받침석이 童子石을 받치고 있다.

年代를 碑文에서 拔取하여 보면, 「咸豐乙卯正月…」에 卒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童子石의 製作도 咸豐乙卯年인 檀紀4188年(1855)을 전후한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材料는 粗面質玄武岩이다.

規格과 特徵은 아래와 같다.

규 격

| 방 향 | 높 이  | 가슴너비 | 가슴두께 | 얼굴높이 | 얼굴너비 | 비 고                      |
|-----|------|------|------|------|------|--------------------------|
| 동   | 48.5 | 19.0 | 17.0 | 21.0 | 16.5 | 사각의받침석속에 5-7cm 정도 들어가 있음 |
| 서   | 49.0 | 18.5 | 16.0 | 20.0 | 17.0 | "                        |

(단위 : cm)

특 징

| 위 치 | 얼 굴 |     |     |     | 손 위 치 | 손에든물건  | 두발 상태 | 비 고           |
|-----|-----|-----|-----|-----|-------|--------|-------|---------------|
|     | 눈   | 코   | 귀   | 입   |       |        |       |               |
| 좌   | 반양각 | 양 각 | 양 각 | 음 각 | 배     | 십자가(?) | 댕기 머리 | 오른쪽 컷볼과 콧등 파손 |
| 우   | "   | "   | "   | "   | "     | "      | "     | 좌쪽 귀와 코 파손    |

3) 舊左邑 下道里 童子石-2(寫眞 7, 8)

下道里마을 서남쪽 方向의 耕作地에는 “孺人夫氏之墓”가 있다. 墓의 方向은 北向을 하고 있다. 산담과 床石 등은 비교적 잘 정돈되어 있는데, 碑는 墓

의 앞쪽 가운데에 세워져 있다.

童子石은 墓의 앞쪽 좌우에 2基가 세워져 있는데, 산담의 모서리에 45°정도의 각도로 눕혀져 있으며, 땅에 묻혀 있지도 않다. 方向은 墓의 앞쪽 中央을 向하고 있다. 全體的으로 보아, 墓 앞쪽의 도로확장 때에 산담이 밀려 쌓인 것이 아닌가 한다.

年代를 碑文에서 拔取하여 보면 「光緒十二年…卒」로 되어 있어서 檀紀 4219年(1886)을 전후한 時期에 童子石을 製作한 것으로 본다.

材料는 多孔質玄武岩이다.

規格과 特徵은 아래와 같다.

규 격

| 방 향 | 높 이  | 가슴너비 | 가슴두께 | 얼굴높이 | 얼굴너비 | 비 고              |
|-----|------|------|------|------|------|------------------|
| 동   | 55.0 | 19.0 | 15.0 | 19.0 | 20.0 | 총 높이임            |
| 서   | 59.0 | 19.5 | 17.0 | 20.0 | 20.0 | 총 높이임<br>코 일부 파손 |

(단위 : cm)

특 징

| 위 치 | 얼 굴 |     |     |     | 손 위 치 | 손에든물진 | 두발상태 | 비 고     |
|-----|-----|-----|-----|-----|-------|-------|------|---------|
|     | 눈   | 코   | 귀   | 입   |       |       |      |         |
| 좌   | 반양각 | 양 각 | 양 각 | 음 각 | 배     | 십자가형  | ?    | 코 일부 파손 |
| 우   | "   | "   | "   | "   | "     | "     | ?    | "       |

4) 舊左邑 杏源里 童子石(寫眞 9, 10)

北濟州郡 舊左邑 杏源里 마을에서 서쪽으로 약 300미터 떨어진 地點의 耕作

濟州島の 童子石 研究

地에는 金公·韓氏의 雙墓가 있다. 方向은 동쪽을 向하고 있다. 山담은 한줄로 낮게 쌓아져 있으며, 碑는 심하게 風化됨으로 인하여 碑文을 알아볼 수 없다.

童子石은 雙墓의 양쪽 가에 마주보고 서 있다. 손에는 술병같은 물건이 들리워져 있는데, 희미하게 조각되어 얼른 알아보기 어렵다.

年代는 아직 未詳이며, 材料는 多孔質玄武岩이다.

規格과 特徵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규 격

| 방 향 | 높 이  | 가슴너비    | 가슴두께 | 얼굴높이 | 얼굴너비 | 비 고               |
|-----|------|---------|------|------|------|-------------------|
| 남   | 62.0 | 27.0(?) | 19.0 | 24.5 | 19.0 | 흙 속에 5~10cm 정도 묻힘 |
| 북   | 63.0 | 27.0(?) | 23.0 | 25.0 | 19.0 | "                 |

(단위 : cm)

특 징

| 위 치 | 얼 굴 |     |     |     | 손 위 치 | 손에든물건 | 두발 상태 | 비 고    |
|-----|-----|-----|-----|-----|-------|-------|-------|--------|
|     | 눈   | 코   | 귀   | 입   |       |       |       |        |
| 좌   | 양 각 | 양 각 | 양 각 | 음 각 | 배     | 병(?)  | 땡기 머리 | 18c 추정 |
| 우   | "   | "   | "   | "   | "     | "     | "     | "      |

5) 舊左邑 西金寧里 童子石(寫眞 11, 12)

北濟州郡 舊左邑 西金寧里 마을에서 서쪽으로 약 500미터 떨어진 耕作地에는 未詳의 墓가 있다. 墓의 서쪽편으로 보면 또 하나의 墓가 있어서 全體的으로 보면 雙墓인 듯 하다. 望柱石을 비롯 床石 등이 산담과 더불어 잘 정돈

되어 있다. 墓의 方向은 바다가 훤히 보이는 北向을 하고 있다. 바다와는 일주도로를 사이에 두고 약 30미터 정도의 거리이며, 海拔 약 5미터 정도에 위치한다.

童子石은 墓의 앞쪽 좌우에 2기가 마주 보고 서 있다. 좌측의 童子石 손에는 술병이 들리워져 있으며, 우측의 동자석에는 술잔이 들리워져 있는 점이 特徵的이다.

材料는 多孔疾玄武岩이다. 規格과 特徵은 아래와 같다.

규 격

| 방 향 | 높 이  | 가슴너비 | 가슴두께 | 얼굴높이 | 얼굴너비 | 비 고               |
|-----|------|------|------|------|------|-------------------|
| 동   | 55.0 | 20.0 | 16.5 | 21.0 | 19.0 | 흉 속에 5~10cm 정도 묻힘 |
| 서   | 54.0 | 19.5 | 16.0 | 24.0 | 18.0 | "                 |

(단위 : cm)

특 징

| 위 치 | 얼 굴 |     |     |     | 손 위 치 | 손에든물건 | 두발 상태 | 비 고    |
|-----|-----|-----|-----|-----|-------|-------|-------|--------|
|     | 눈   | 코   | 귀   | 입   |       |       |       |        |
| 좌   | 양 각 | 양 각 | 양 각 | 음 각 | 배     | 병     | 땡기머리  | 18c 추정 |
| 우   | "   | "   | "   | "   | "     | 잔     | "     | "      |

6) 表善邑 表善里 童子石-1(寫眞 13)

南濟州郡 表善邑 表善里 表善中學校 서북방 약 500미터 地點의 牧草地 內에는 "奉訓卽軍資監判官高公之墓"가 있다. 墓의 方向은 서쪽을 향하고 있으며, 산담 內에는 床石을 비롯한 碑文과 童子石 등이 있다.

濟州島의 童子石 研究

童子石은 現在 1基만 좌측에 서 있는데, 우측의 것은 破損된 것으로 보인다. '86년도 調査당시에는 遺失된 것으로 보았는데 '89년도 調査時에 북편의 산담에서 다른 1基의 頭像部分을 찾아 낼 수 있었다.

墓碑는 風化가 심하여 碑文의 판독이 매우 불가능하였는데 다행스럽게 年代를 推定할 수 있는 「康熙乙巳(己巳)……」이란 銘文이 남아 있어서 乙巳年인 경우 檀紀 3998年(1665)에 해당하며, 己巳年인 경우 檀紀 4022年(1689)이므로 童子石의 製作時期를 推定할 수 있었다.

童子石의 材料는 粗面質玄武岩이며, 規格과 特徵은 아래와 같다.

규 격

| 방 향 | 높 이  | 가슴너비 | 가슴두께 | 얼굴높이 | 얼굴너비 | 비 고     |
|-----|------|------|------|------|------|---------|
| 북   | 52.0 | 20.5 | 18.0 | 17.5 | 14.0 | 목 파손 보수 |
| 남   | 0    | 0    | 0    |      |      | 頭像部分 發見 |

(단위 : cm)

특 징

| 위 치 | 얼 굴 |     |     |     | 손 위 치 | 손에든물건 | 두발 상태 | 비 고   |
|-----|-----|-----|-----|-----|-------|-------|-------|-------|
|     | 눈   | 코   | 귀   | 입   |       |       |       |       |
| 좌   | 반양각 | 양 각 | 양 각 | 반양각 | 가 슴   | ?     | 땡기 머리 | 목으로파손 |
| 우   | "   | "   | "   | "   | ○     | ○     | ○     | 두상만발견 |

7) 表善邑 表善里 童子石-2(寫眞 14, 15)

表善里 表善中學校 서쪽 약 80미터 떨어진 耕作地에는 “淑夫人康氏之墓”가 있다. 墓의 方向은 남쪽을 하고 있다. 앞 部分에는 床石과 碑, 양쪽 가에는

童子石 2基가 마주보고 서 있다.

童子石의 얼굴은 扁平하게 製作되어 있는데, 코와 귀만 돌출시키고 나머지는 陰刻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눈썹이 表現되었는가 하면, 코구멍까지 뚫어져 있으며, 손가락 묘사도 되어 있다. 이밖에, 좌측(서쪽)의 童子石인 경우 가슴 부분에 저고리 고름같은 것이 나타나 있으며, 우측(동쪽)인 경우, 손에 술잔 모양의 것이 달려져 있다.

年代는 아직 알 수가 없다. 材料는 粗面質玄武岩이며, 規格과 特徵은 아래와 같다.

규 격

| 방 향 | 높 이  | 가슴너비 | 가슴두께 | 얼굴높이 | 얼굴너비 | 비 고            |
|-----|------|------|------|------|------|----------------|
| 서   | 48.0 | 19.3 | 13.7 | 13.5 | 12.0 | 흉 속에 5cm 정도 문합 |
| 동   | 40.0 | 18.0 | 13.4 | 14.5 | 15.0 | "              |

(단위 : cm)

특 징

| 위 치 | 얼 굴 |     |     |     | 손 위 치 | 손에든물건 | 두발 상태 | 비 고   |
|-----|-----|-----|-----|-----|-------|-------|-------|-------|
|     | 눈   | 코   | 귀   | 입   |       |       |       |       |
| 좌   | 반양각 | 양 각 | 양 각 | 반양각 | 가 슴   | 없 음   | 땃기머리  | 코구멍뚫음 |
| 우   | "   | "   | "   | "   | 배     | 잔(?)  | "     | "     |

8) 表善邑 表善里 童子石-3(寫眞 16, 17)

南濟州郡 表善面 表善里 마을에서 약 3킬로미터 떨어진 북서쪽 地點에는 "折衝將軍金公之墓"가 있다. 墓의 方向은 남쪽을 향하고 있다. 墓에는 床石·

濟州島의 童子石 研究

碑·童子石 등이 있다. 동편으로 하여 또 하나의 墓가 있는 것으로 보아, 후 雙墓가 아닌가 한다.

童子石은 金公墓의 앞 양쪽 가에 2基가 마주보고 서 있다. 좌측의 童子石의 경우, 손에 꽃봉우리(?) 같은 모양의 것이 들리워져 있고, 머리 모양은 올린 머리 비슷한 모양, 즉 목 바로 위에서 묶여있는 모양을 하고 있어서 여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측의 童子石에는 활짝피기 직전의 꽃(?)같은 모양의 것이 들리워져 있으며 머리모양이 땡기머리여서 남자를 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年代를 碑文에서 拔取하여 보면「乾隆三十一年……」으로 되어 있어서 檀紀 4099年(1766)을 전후한 時期에 製作된 것으로 推定된다.

材料는 粗面質玄武岩이며, 規格과 特徵은 아래와 같다.

규 격

| 방 향 | 높 이  | 가슴너비 | 가슴두께 | 얼굴높이 | 얼굴너비 | 비 고       |
|-----|------|------|------|------|------|-----------|
| 서   | 57.0 | 22.5 | 17.0 | 18.0 | 17.5 | 혹 속에 약간물힘 |
| 동   | 69.5 | 24.5 | 15.0 | 19.0 | 16.5 | "         |

(단위 : cm)

특 징

| 위 치 | 얼 굴 |     |     |     | 손 위 치 | 손에든물건  | 두발상태  | 비 고  |
|-----|-----|-----|-----|-----|-------|--------|-------|------|
|     | 눈   | 코   | 귀   | 입   |       |        |       |      |
| 좌   | 반양각 | 양 각 | 양 각 | 음 각 | 배     | 봉우리(?) | 올린머리모 | 목으로손 |
| 우   | "   | "   | "   | "   | "     | 꽃(?)   | 땡기머리  |      |

9) 西歸浦市 童子石-1(寫眞 18, 19)

西歸浦市 외돌괴에서 북쪽으로 약 100여 미터 떨어진 공동묘지 안에는 “鄉校都訓長金公之墓”가 있다. 方向은 남향을 하고 있다. 산담과 床石·碑·童子石이 알맞게 배치되어 있다.

童子石은 墓의 앞쪽 양쪽가에 2基가 마주보고 서 있다. 일른 보기에 얼굴이 유난히 큰 것 같은데, 扁平한 얼굴면에 코만 돌출시켜서 그렇다. 양쪽의童子石 모두 손에는 손잡이가 있는 동그란 모양의 것을 잡고 있는데 어떤 물건을 뜻하는 것인지 아직 모르겠다.

碑文에서 年代는 拔取하면, 「光武五年辛丑……卒」로 되어 있어서 檀紀 423 4年(1901)을 전후한 時期에 童子石이 製作된 것으로 본다.

材料는 粗面質玄武岩이며, 規格과 特徵은 아래와 같다.

규 격

| 방 향 | 높 이  | 가슴너비 | 가슴두께 | 얼굴높이 | 얼굴너비 | 비 고       |
|-----|------|------|------|------|------|-----------|
| 서   | 54.5 | 22.5 | 12.7 | 21.0 | 19.5 | 흙속에 약간 묻힘 |
| 동   | 59.5 | 25.3 | 15.2 | 21.5 | 19.5 | "         |

(단위 : cm)

특 징

| 위 치 | 얼 굴 |     |     |     | 손 위 치 | 손에든물건 | 두발 상태 | 비 고     |
|-----|-----|-----|-----|-----|-------|-------|-------|---------|
|     | 눈   | 코   | 귀   | 입   |       |       |       |         |
| 좌   | 음 각 | 양 각 | 양 각 | 음 각 | 배     | 💡 (?) | 땃기머리  | 코 일부 파손 |
| 우   | "   | "   | "   | "   | "     | "     | "     | "       |



10) 西歸浦市 童子石-2(寫眞 20, 21)

西歸浦市 외돌괴 동쪽편 약 80미터 지점의 木草地 안에는 “儒人康氏之墓”가 있다. 方向은 南西向을 하고 있다. 산담이 잘 정돈되어 있으며, 床石·碑石·童子石이 알맞게 배치되어 있다.

童子石은 墓의 앞 양쪽에 2基가 마주보고 서 있는데, 좌측의 童子石의 경우 부채(?) 비슷한 모양의 물건이 表現되었으며, 우측의 경우 방울(?) 같은 모양의 물건이 들리워져 있다. 양쪽의 童子石 모두 큰 것볼에 마치 귀걸이라도 걸려있는 듯한 귀 모양을 하고 있으며, 코구멍까지 뚫어놓은 세밀함도 보여 주고 있다.

墓碑에는 兩歷을 쓰고 있는데 「一八六三年癸亥……終」이라고 表記되어 있어서 童子石의 製作時期를 推定할 수 있다.

材料는 粗面質玄武岩이며, 規格이나 特稱은 아래와 같다.

규 격

| 방 향 | 높 이  | 가슴너비 | 가슴두께 | 얼굴높이 | 얼굴너비 | 비 고               |
|-----|------|------|------|------|------|-------------------|
| 서   | 60.5 | 21.5 | 12.5 | 20.0 | 17.5 | 쪽 속에 5~10cm 정도 문합 |
| 동   | 46.0 | 22.0 | 13.5 | 21.5 | 18.0 | -                 |

(단위 : cm)

특 징

| 위 치 | 얼 굴 |     |     |     | 손 위 치 | 손에든물건  | 두발상태  | 비 고      |
|-----|-----|-----|-----|-----|-------|--------|-------|----------|
|     | 눈   | 코   | 귀   | 입   |       |        |       |          |
| 좌   | 반양각 | 양 각 | 양 각 | 음 각 | 배     | 부채형(?) | 댕기 머리 | 코·귀 약간파손 |
| 우   | "   | "   | "   | "   | "     | 방울형(?) | "     | 코 일부 손파  |

11) 濟州市 童子石(寫眞 22, 23)

濟州市 龍潭洞과 道頭洞 內的 耕作地에는 “牙山業武朴公南平孺人文氏之墓”가 있다. 墓는 西向을 하고 있으며, 산담이 잘 정돈되어 있는 한편, 床石·碑·童子石이 있다.

童子石은 墓 앞쪽에 남과 북으로 마주보고 서 있다. 남쪽의 童子石인 경우 술병을 들고 서 있으며, 북쪽의 경우 술잔을 들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年代를 墓碑에서 拔取하여 보면 「咸豐十一年…」로 되어 있어서 檀紀 4194年(1861)을 전후한 時期에 童子石의 製作이 있었지 않았나 한다.

材料는 多孔質玄武岩이며, 規格 및 特徵은 아래와 같다.

규 격

| 방 향 | 높 이  | 가슴너비 | 가슴두께 | 얼굴높이 | 얼굴너비 | 비 고        |
|-----|------|------|------|------|------|------------|
| 북   | 56.0 | 20.0 | 16.0 | 24.0 | 16.5 | 흙 속에 일부 묻힘 |
| 남   | 50.0 | 23.0 | 17.0 | 23.0 | 17.5 | “          |

(단위 : cm)

특 징

| 위 치 | 얼 굴 |     |     |     | 손 위 치 | 손에든물건 | 두발 상태 | 비 고         |
|-----|-----|-----|-----|-----|-------|-------|-------|-------------|
|     | 눈   | 코   | 귀   | 입   |       |       |       |             |
| 좌   | 반양각 | 양 각 | 양 각 | 음 각 | 가 슴   | 술 잔   | 땀기머리  | 코 일부 파손     |
| 우   | “   | “   | “   | “   | “     | 술 병   | “     | 코가 닳아 짐 (?) |

12) 翰京面 新昌里 童子石-1(寫眞 24, 25)

北濟州郡 翰京面 新昌里 마을 서쪽 약 400미터 떨어진 牧草地에는 “學生○

濟州島의 童子石 研究

○淑人○氏之墓”라고 된 합墓가 있다. 동편으로는 “○公○○之墓”가 있는데 모두 北向을 하고 있다.

童子石은 “○公○○之墓” 앞에 총 4기가 있는데 3기는 破損되어 있으며, 동쪽의 1기만 완전한 모습으로 서 있다. 3기의 童子石들은 목이나 어깨부위로 깨어져 있는데, 두 基의 童子石인 경우 頭像을 찾아 확인할 수 있었으나 1基는 찾지 못했다. 원래는 2墓에 각각 2基씩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破損된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후손들이 굵은 철판이나 콘크리트로 破損된 童子石을 복원하려 했던 흔적이 있다.

墓碑銘에는 「乾隆乙巳年……終」으로 되어 있어서 檀紀 4085年(1752)을 전후한 시기에 製作된 것으로 본다.

材料는 粗面質玄武岩이며, 規格 및 特徵은 아래와 같다.

규 격

| 방 향 | 높 이  | 가슴너비 | 가슴두께 | 얼굴높이 | 얼굴너비 | 비 고     |
|-----|------|------|------|------|------|---------|
| 동   | 43.0 | 22.0 | 10.5 | 19.0 | 16.5 | 목부위로 파손 |
| 서   | 52.5 | 27.5 | 10.0 | 19.0 | 14.0 | “       |

(단위 : cm)

특 징

| 위 치 | 얼 굴 |   |     |     | 손 위 치 | 손에든물건 | 두발 상태 | 비 고 |
|-----|-----|---|-----|-----|-------|-------|-------|-----|
|     | 눈   | 코 | 귀   | 입   |       |       |       |     |
| 좌   | 반양각 | ? | 양 각 | 음 각 | 가 슝   | ?     | ?     | 파 손 |
| 우   | “   | “ | “   | “   | “     | “     | “     | “   |

13) 翰京面 新昌里 童子石-2(寫眞 26, 27)

新昌里 마을에서 서쪽으로 약 500미터 떨어진 耕作地에는 “學生左公孺人申氏之墓”가 있다. 이 墓는 雙墓인데 北向을 하고 있다. 全體的으로 산담이 잘 정돈되어 있으며 床石·碑·童子石이 있다.

童子石은 學生左公의 墓에만 2기가 양쪽가에 세워져 있는데 마주보지 않고 墓를 향하고 있다. 서쪽의 童子石인 경우 두발형태가 없으며, 동쪽의 경우는 땡기머리를 하고 있다. 두께는 8.5~11.0센티미터로 얇은 편이다. 코의 높이도 낮아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墓碑에는 「嘉慶戊午年……終」이라 되어 있어서 檀紀 4131年(1798)을 전후한 시기에 童子石이 製作된 것으로 본다.

材料는 粗面質玄武岩이다.

規格과 特稱은 아래와 같다.

규 격

| 방 향 | 높 이  | 가슴너비 | 가슴두께 | 얼굴높이 | 얼굴너비 | 비 고    |
|-----|------|------|------|------|------|--------|
| 동   | 58.5 | 19.0 | 11.0 | 20.0 | 14.5 | 총 높이 임 |
| 서   | 57.0 | 20.5 | 8.5  | 21.0 | 15.0 | "      |

(단위: cm)

특 징

| 위 치 | 얼 굴 |     |     |     | 손 위 치 | 손에든물건 | 두발 상태 | 비 고 |
|-----|-----|-----|-----|-----|-------|-------|-------|-----|
|     | 눈   | 코   | 귀   | 입   |       |       |       |     |
| 좌   | 반양각 | 양 각 | 양 각 | 반양각 | 가 슴   | 없 음   | 땡기머리  |     |
| 우   | "   | "   | "   | "   | "     | "     | 없 음   |     |

14) 翰京面 新昌里 童子石 -3 (寫眞 28, 29)

北濟州郡 翰京面 신흥동 마을에서 동쪽으로 약 600미터 떨어진 木草地에는 “及弟左公之墓”가 있다.

墓의 方向은 동향을 하고 있다. 산담은 높게 쌓아져 있으며, 床石을 비롯한 碑와 童子石이 있다.

墓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 가에는 童子石이 墓를 향하여 세워져 있다. 좌측의 童子石인 경우 술잔을 들고 서 있으며, 우측의 童子石은 술병을 들고 있다. 두 童子石 모두 땀기머리를 하고 있다.

碑는 풍화가 심하여 年代를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道光壬午……(?)」이라 고 表記되어 있어서 대략 檀紀 4155年(1822)쯤 童子石이 製作된 것으로 본다.

材料는 粗面質玄武岩이며, 規格과 特徵은 아래와 같다.

규 격

| 방 향 | 높 이  | 가슴너비 | 가슴두께 | 얼굴높이 | 얼굴너비 | 비 고        |
|-----|------|------|------|------|------|------------|
| 동   | 62.0 | 19.0 | 14.5 | 20.0 | 16.0 | 흙 속에 약간 묻힘 |
| 서   | 62.0 | 18.5 | 15.0 | 20.0 | 15.0 | "          |

(단위 : cm)

특 징

| 위 치 | 얼 굴 |     |     |     | 손 위 치 | 손에든물건 | 두발상태 | 비 고     |
|-----|-----|-----|-----|-----|-------|-------|------|---------|
|     | 눈   | 코   | 귀   | 입   |       |       |      |         |
| 좌   | 반양각 | 양 각 | 양 각 | 반양각 | 배     | 술 잔   | 땀기머리 | 코 약간 손과 |
| 우   | "   | "   | "   | "   | "     | 술 병   | "    | "       |

15) 大靜邑 新桃里 童子石-1(寫眞 30, 31)

南濟州郡 大靜邑 新桃里 農南峰 서쪽의 耕作地에는 “吳氏 金公 雙墓”가 있다. 方向은 서남쪽을 향하고 있다. 산담은 잘 정돈되어 있으며, 안에는 床石·碑·童子石 등이 있다.

童子石은 雙墓의 양쪽가에 마주보고 서 있다. 좌·우측 童子石 모두가 앞쪽의 산담과 바짝붙어 있다. 形態는 눈·귀·코가 陽刻, 입이 陰刻으로 되어 있다.

年代를 碑文에서 拔取하여 보면, 「乾隆 壬子年……終」으로 되어 있으므로 檀紀 4125年(1792)을 전후한 시기에 製作되지 않았나 한다.

材料는 粗面質玄武岩이며 規格과 特徵은 아래와 같다.

규 격

| 방 향 | 높 이  | 가슴너비 | 가슴두께 | 얼굴높이 | 얼굴너비 | 비 고            |
|-----|------|------|------|------|------|----------------|
| 남   | 62.0 | 25.0 | 17.5 | 17.6 | 18.0 | 흙 속에 5cm 정도 묻힘 |
| 북   | 62.0 | 22.0 | 19.0 | 20.5 | 17.5 | "              |

(단위 : cm)

특 징

| 위 치 | 얼 굴 |     |     |     | 손 위 치 | 손에든물건 | 두발 상태 | 비 고     |
|-----|-----|-----|-----|-----|-------|-------|-------|---------|
|     | 눈   | 코   | 귀   | 입   |       |       |       |         |
| 좌   | 양 각 | 양 각 | 양 각 | 음 각 | 가 슴   | ?     | ?     | 코 일부 파손 |
| 우   | "   | "   | "   | "   | "     | "     | "     | "       |

16) 大靜邑 新桃里 童子石-2(寫眞 32, 33)

農南峰 동쪽의 耕作地 안에는 “留鄉別監邊公之墓”가 있다. 方向은 동쪽을 향하고 있다. 산담이 있고 床石·碑·童子石이 있다.

童子石은 墓 앞의 양쪽 가에 2基가 마주보고 서 있다.

좌측의 童子石인 경우, 배 정도의 위치에 “-”가 陰刻되어 있으며, 우측의 경우는 “+”가 음각되어 있다.

두발상태를 보면, 좌측인 경우 땡기머리를 하고 있으며 우측인 경우는 아무런 흔적이 없다.

年代는 碑文이 많이 風化됨으로 인하여 확실치 못하다. 그렇지만 「乾隆辛巳……」로 되어 있어서 대략 檀紀4094年(1761)을 전후한 시기에 製作되지 않았나 한다.

材料는 粗面質玄武岩이며 規格과 特徵은 아래와 같다.

규 격

| 방 향 | 높 이  | 가슴너비 | 가슴두께 | 얼굴높이 | 얼굴너비 | 비 고       |
|-----|------|------|------|------|------|-----------|
| 남   | 63.5 | 23.0 | 17.5 | 24.0 | 16.0 | 코 부위 약간파손 |
| 북   | 63.0 | 21.0 | 17.5 | 23.0 | 16.0 | “         |

(단위 : cm)

특 징

| 위 치 | 얼 굴 |     |     |     | 손 위 치 | 손에든물건 | 두발상태 | 비 고 |
|-----|-----|-----|-----|-----|-------|-------|------|-----|
|     | 눈   | 코   | 귀   | 입   |       |       |      |     |
| 좌   | 양 각 | 양 각 | 양 각 | 음 각 | 가 슴   | ?     | 땡기머리 | -표  |
| 우   | “   | “   | “   | “   | “     | “     | 없 음  | +표  |

## 2. 墓의 石物 中에서의 童子石의 位置

여기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墓에서의 童子石의 位置에 대해서이다. 童子石의 位置를 圖表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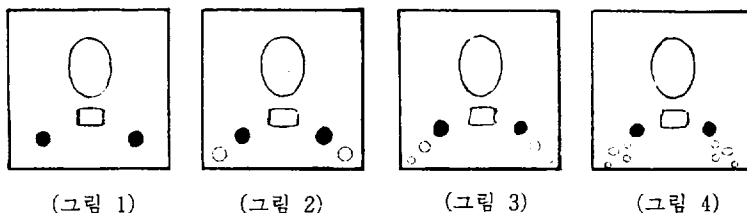


그림 1인 경우, 墓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예이다.

峯墳앞에서 床石, 童子石 순으로 配置되어 있다. (寫眞 1,2)

그림 2인 경우, 床石, 童子石, 望柱石 순으로 되어 있다. (寫眞 11,12)

그림 3인 경우, 床石, 童子石, 望柱石, 將軍石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橋來里 산굼부리 북편 童子石)

그림 4인 경우는 床石, 童子石, 文石, 羊石, 將石, 望柱石 순으로 配置되어 있다. (濟州市 文敬公高兆基 童子石)

이상의 그림에서 살펴보았듯이 童子石은 墓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즉, 주검(靈魂)과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墓에서의 位置的 童子石은 重要的 視點에 있다고 본다.

## IV. 形態 및 細部的 樣相

童子石의 全身·形態를 人體의 上·下段으로 비유하였을 때, 童子石은 實際



的으로 上段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허리 위로만 製作되었고 그 밑은 實體的으로 省略 技法을 應用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VI. 美術學的 側面에서 論하기로 하겠으며 본 장에서는 童子石의 細部的인 面에 重點을 두고 알아보기로 하겠다.

## 1. 얼굴

童子石의 얼굴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정면에서 : ㉠ 타원형을 한 계란형 얼굴(사진12, 16, 22, 26, 32, 36, 41)

㉡ 공처럼 둥근 원형 얼굴(사진14, 18, 20)

(여기에서 ㉠, ㉡을 확실하게 구분짓기 위하여 한계성 비율을 필자 나름대로 정하여 구분점으로 삼겠다. ㉠의 계란형 얼굴은 얼굴의 길이가 가로의 5분의 4이하인 것으로 하겠으며, ㉡의 원형 얼굴은 얼굴의 길이가 가로의 5분의 4이상인 것으로 하겠다.)

② 측면에서 : ㉢ 사람과 같은 곡선형 얼굴(사진11, 16, 22)

㉣ 편평한 직선형 얼굴(사진7, 14, 40)

(㉢의 곡선형 얼굴은 눈과 코와 입을 표현함에 있어서 굴곡으로 나타내는 이른바, 사람의 실제 얼굴과 흡사한 형태의 얼굴을 말하며 ㉣의 직선형 얼굴에 있어서는 코를 제외한 얼굴이 편평한 판자처럼 되어 있어서 전체 얼굴을 직선으로 다듬은 형태의 얼굴을 말한다.)

정면에서의 계란형 얼굴의 동자석인 경우, 측면에서의 곡선형과 직선형 모두에 나타나고 있으며, 동자석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고 있다.

정면에서 원형 얼굴인 경우 측면에서의 직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는 코만 돌출시켜 있으며 나머지의 눈과 입은 반양각 또는 음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계란형+곡선형 얼굴인 경우에는 눈·코·입이 양각이나 반양각 혹은 음각으로 상세히 표출시키는 경향이 보편적이다. (사진16, 30, 41)

계란형+직선형의 경우는 편평한 얼굴에 코만 돌출시키고 나머지의 눈과 입은 반양각 또는 음각으로 처리하는 예이다. (사진5, 6, 34)

## 2. 몸

동자석 몸의 구분은 사다리꼴형과 직사각형으로 구분하여 보기로 하겠다.

① 사다리꼴형 : 이 형태의 동자석들은 위가 작고 밑이 큰 관계로 소박하게 보이나 안전성은 있게 보여서 차분한 느낌을 준다. (사진3, 11, 14, 16, 36)

(※ 여기서에서 사다리꼴형이라 함은 동자석의 어깨의 각도가 100°에서 ±5° 이상의 눈각을 갖는 것을 말하기로 하겠다.)

② 직사각형 : 이 경우는 위와 밑이 거의 같은 동자석을 말한다. 어깨에 힘이 있어 튼튼하게 보이며, 꽃꽂함도 나타난다. 그러나 조금만 기울어져도 그 형상을 눈으로 구분할 수 있어 불완전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사진5, 7, 9, 18, 38)

(※ 여기에서의 직사각형이라 함은 동자석 몸의 어깨가 90°에서 ±5°이하인 것으로 말한다.)

## 3. 손

손의 구분에 있어서는 애매모호한 일이었다. 예를 들어 손을 오무린 상태나 편 상태, 손을 가슴부위에 모은 상태, 배에서 모은 상태 등이다. 이러한 것을 세분화 시키는 일은 이른 듯 하여 우선 두 가지로 구분하기로 하겠다.

① 가슴에 손 : 동자석 손이 가슴위치에 놓여 있는 상태이다. 이 경우는 경배(敬拜)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간혹 술잔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잔을 올리는 듯한 인상을 주어 시간의 차를 현실에 가깝게 하고 있다. 빈손을 한 형태도 간혹 나타난다. (사진3, 36, 41, 54)

② 배위에 손 : 배 위치에 손이 놓여진 경우에는 대부분 어떠한 물건을 들고 있는 예가 많이 나타난다. 이것은 물건을 표현하기 위한 공간을 얻기 위한 방법이라 생각하면 손을 내린 이유를 쉽게 알 수가 있다. (사진5, 7, 18, 20, 28)

#### 4. 기타

머리 부분의 두발상태나 측면, 뒷면 상태가 일정치 않게 나타나 어떠한 기준을 마련하여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두발상태로는 댕기머리 형태, 민머리 형태, 올린머리 형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조각방법에 있어서도 같은 방법을 응용한 상태에서의 변칙적, 개인적 방법, 독창적 방법 등 큰 관점은 동일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동자석의 세부적 제작방법·양상에 대하여서도 다각도로 살펴봐야 할 일이겠지만, 아직은 자료가 미흡하여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

### V. 表現되는 物質

童子石에서 나타나는 物質은 확실한 것으로 병·잔·꽃이며, 불확실한 것으로 부채형·방울형·표주박형·꽃봉우리형·동근형·사각형·십자형 등이 있고, 표로서는 +, - 형이 있다.

불확실한 물건들은 전부 손잡이가 달려있는 것이 특징이다.

① 병 : 동자석 손에 병을 들고 있을 때, 반대편 동자석은 잔을 들고 서 있는 경우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데 병과 병인 예도 있다. 병과 잔일 경우에 있어서 잔은 술잔의 모양을 하고 있으므로 술병이라 봐야 옳을 것이다. 기법은 반돌출시키는 경우와 양각의 기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진20, 11, 23, 29, 54)

② 잔 : 술병과 같이 반돌출기법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잔=잔을 나타내는 예는 아직 발견이 안되고 있다. (사진9, 12, 22, 28, 45)

③ 꽃 : 마치 연꽃을 연상시키는 꽃으로 확 터뜨리기 직전의 꽃을 연상시키고 있다. 반돌출기법을 쓰고 있다. (사진17, 42)

④ 부채형 : 반쯤 편 부채같은 형태인데 그 밑으로 둥그스름한 것이 표현되어 있어 무엇인지 확실치 않다. 양각으로 되어 있다. (사진15, 20)

⑤ 방울형 : 방울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데 손잡이 바로 위로 둥그스름한 것이 붙어 있다. 양각으로 되어 있다. (사진21, 46)

⑥ 표주박형 : 표주박도 같고 눈사람 같기도 하고 인형같기도 한 8자 비슷한 형태에다 손잡이가 있다. 양각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진40)

⑦ 꽃봉우리형 : 삼각형 비슷한 형태에 긴 손잡이 같은 것이 나타나 있다. 무엇인지 모르겠다. 상대편은 꽃인 경우도 있고 똑 같은 형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반돌출이나 양각의 기법을 응용하고 있다. (사진 16, 44)

⑧ 둥근형 : 달같기도 하고, 동그란떡같기도 한데 손잡이가 달려 있다. 음각으로 표현되어 있다. (사진18, 19, 43)

⑨ 사각형 : 손잡이가 달린 사각형 모양의 물건인데 확실치 않다. 양각으로 나타나 있다. (사진34, 35)

⑩ 십자형 : 삼각형 비슷한 형태 밑으로 손잡이가 있고 중간 정도로 가로의 막대가 걸쳐져 있다. 십자가처럼 보이나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다. 직각으로 되어 있다. (사진5, 6, 7, 8)

⑪ +자형 : 배 밑 위치에 “+”자가 음각되어 있다. 혹은, 남자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사진33)

⑫ -자형 : +자형 동자석 반대편의 것으로 “-”자가 음각되어 있다. 여자를 뜻하는 것 같다. (사진32, 47)

이 외에 흙, 칼, 고름 비슷한 것들이 표현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석상의 구분에서 동자석인지 아닌지 구분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본 고에서 제외시켜 있는 상태이다. 좀 더 조사와 연구가 있는 후에 밝히기로 하겠다.

## VI. 美術學的 側面 및 信仰的 意義

童子石의 樣相을 筆者 나름대로의 美術學的 側面에서 살펴보고 童子石에 따르는 信仰的인 意義를 簡略하게 照明해 보고자 한다.

## 1. 美術學的 側面에서의 童子石

童子石의 表現方法은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얼굴을 중심으로 한 細部的 表現 方法

둘째, 全身을 簡略하게 表現하는 方法

셋째, 어느 한 곳을 집중시키고 나머지는 省略해 버리는 抽象的 表現 方法  
이러한 方法을 통해 表現된 童子石의 모습은 제각기 特徵的 形態를 나타낸다.

즉, 細部的 表現에서의 童子石인 경우, 눈, 눈동자, 코, 콧구멍, 입술, 입, 귀, 귓볼, 두발상태, 손, 손가락, 확실한 물건 등을 비롯하여 어떠한 기호로써 양쪽의 童子石을 구분짓는 예이다.

이러한 경우 전체적으로 조밀한 느낌을 주며 어딘지 모르게 섬세하게 나타내려는 흔적이 역력하다.

簡略한 表現에서의 童子石인 경우는 눈이 음각이나 양각으로 “-”자 형식이든가 “○”(타원형) 형태로 表現되며 코, 입, 귀, 두발상태가 보편적으로 簡略하게 처리된다.

이러한 童子石은 전체적으로 쉽게 눈에 들어오나 어딘지 모르게 허전한 느낌을 준다고 볼 수가 있다. 물건의 표현에 있어서도 간략하여 불확실하게 보인다.

抽象的 表現에서의 童子石은 과감하게 중요한 포인트(point)를 확대시켜 나타내고 있으며, 나머지 또한 과감하게 생략시켜 버리는 方法을 응용하여 전체를 완성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의 한 예를 들면, 편평한 얼굴에 이마부위에서 얼굴의 중심 하단까지 코만을 돌출시켜 놓았는데 그 코가 크게 보이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잘 조화되어 있다.

사람의 形象을 크게 나뉘는다면 上段과 下段으로 分離할 수 있다. 上段은 허리 위, 下段은 허리 밑이다. 童子石에서는 上下段 區分이 確實하게 되어 있지 않다. 上段인 허리 위로만 表現되고 있다. 즉, 下段은 省略되었다는 것이

다. 그러나 童子石을 본 사람이면 下段이 없다는 것을 느낀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童子石의 下段은 흠에 문힘으로 인하여 想像的 視覺的인 側面에서 省略的 製作 方法을 應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推測은 現 童子石의 下段部 즉, 接地 部分이 童子石 중에 가장 넓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사다리 꼴형이나 직사각형으로 全體的으로 均衡을 잡는 동시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下段部를 推測케 하는 것이다. 童子石을 보는 사람들이 下段部가 없다는 것을 못 느끼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이다.

童子石의 上段部를 보면 全體的으로 얼굴 比率이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 실제 사람인 경우 가슴의 5분의 1이 얼굴 면적이라고 볼 때 童子石에서의 얼굴 面積은 3분의 1 이상이 되고 있다. 이것은 全體的으로 表現하고자 하는 것을 쉽게 정확히 알릴 수 있는 方法을 應用했다고 볼 수가 있다.

머리는 계란처럼 되어 있어 두발상태 表現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뒷쪽에 가서는 땡기머리나 기타 머리 모양, 즉 두발상태가 나타나 있다.

귀의 表現에서는 童子石 대부분이 크게 製作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면에서 보면 全體的 比例에 잘 맞아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눈은 陰·陽刻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선이나 타원형 등으로 알맞게 表現되고 있는데 口의 모양과 같이하는 경우가 많다. 즉, 눈이 가로선 “一”字이면 口도 “一”字 형식이며, 눈이 타원형이면 口도 타원형과 비슷하게 된다. 또한 陰刻이면 陰刻, 陽刻이면 陽刻이나 半陽刻으로 처리되는 일치성도 보이고 있다. 이는 얼굴을 表現하는데 성격·마음 등을 가늠해 볼 수 있어 童子石에서 상당히 重要的 역할을 하고 있다.

코는 대부분 突出시키고 있는데 크고 길게 表現하고 있다. 이는 正面에서 突出된 것이 작게 보이는 視覺的 錯誤를 잘 감춰주는 동시에 얼굴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는 重要的 역할을 하고 있다.

입인 경우 앞서 밝혔던 눈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턱을 보강해 주고 몸과의 分離成을 없애는, 즉 연결적인 意味가 있다고 본다.

목은 대부분 굵고 짧게 되어 있어서 省略되어 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목은 전체적 힘의 정도를 알 수 있다.

팔의 표현에서는 대부분 가름한 것이 특징적이다. 아이의 형태를 이 가름한 팔이 없었다면 못 알아보았을지 모를 일이다. 손 역시 표현은 가름한 아이의 손이다.

童子石의 제작에 있어서 전문인, 비전문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이번 조사를 통해 추측할 수 있었다. 첫째, 地域的 童子石이 同一性을 띠는 樣相이며 그 속에 제 나름대로 약간의 변칙이 가미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대략적 표현 방법에 있어서 똑 같은 방법을 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는 郭支 童子石과 新桃里 童子石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西歸浦市 童子石과 表善 童子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둘째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독창적인 童子石의 경우이다. 이 경우는 타 童子石과 달리 약간의 변칙으로 독창적 樣相을 갖는 예이다.

이상과 같이 동자석의 美術學的 側面에서 살펴 보았는데 전문인이라 하여 실제적으로 프로(pro)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비전문인이라 하여 아마티어(amateur)를 의미하는 것도 아님을 밝혀둔다. 童子石 자체가 庶民的인 것과 같이 庶民的인 측면에서 논하여 본 것임을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 아 물론 童子石은 전체적으로 허술하면서도 결코, 그렇지 않음도 美術學的으로 잘 조화가 되어 있다는 童子石은 美術學的으로 소외될 수 없는 庶民的 作品임에 틀림 없으며, 나름대로 완성적이라고 보는 바이다.

## 2. 童子石에서 나타나는 信仰

童子石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靈魂을 위로하기 위한 形像이다. 이와 같은 方法은 本土나 세계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지만 대개 고위층에 한정되어 있었다. 또한 表現되는 方法에 있어서도 동·식물 할 것 없이 갖가지에 이른다.

濟州島에서의 童子石은 서민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데서 어쩌면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겠다.

童子石의 信仰的인 面에서도 土俗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外的인 面에서 童子石은 濟州島人들의 信仰的인 面에서 發端되어 만 들어지고 祖上을 섬기기 위한 하나의 方法에서 세워져 왔다고 본다. 形像을 통한 細部的인 面을 보면, 土俗的·샤머니즘적·巫俗的·佛敎的·儒敎的인 面 등이 가미되어 있다고 본다.

둘째, 內的인 面에서 地神이라 하여 그 터에서의 神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일들은 墓를 옮길 때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주검을 옮겨도 童子石은 그냥둔다. 이러한 사실은 童子石은 現存하는 무덤에서의 神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셋째, 現在의 人間과의 관계이다. 즉, 落胎를 요하는 경우나 몸쓸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하나의 方法으로 童子石의 어떠한 부분 일부를 잘라다 삶아 그 물을 먹으면 된다는 예이다.

넷째, 靈魂을 받드는 外的인 形像을 통한 靈的인 面에서의 童子石이다. 꽃·술병·술잔이나 어떠한 물건 등은 주검의 靈魂을 모시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다섯째, 반드시 2基가 마주 보거나 墓를 向해서 서 있다는 것이다. 전자인 경우는 本土나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지만 후자인 경우는 보기 드문 예이다. 즉, 주검의 영혼과 마주보고 있는 것은 서민적인 일이라 생각된다.

여섯째, 男女의 像으로 나타나는 예이다. 남녀관계는 머리모양에서나 어떠한 기호(+, -)나 꽃 등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경우를 신으로 본다면 하늘과 땅의 신으로도 볼 수가 있다.

이상과 같이 童子石의 信仰的인 面을 알아 봤는데 주검과 마주보고 있는 점이나 남녀를 나타내는 表現을 통한 주검과의 친근감은 濟州島人들의 信仰의 일면을 잘 말해 준다고 하겠다. 특이할 만한 것은 童子石은 他 地域처럼 주검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모시기 위한 점이라고 볼 수 있다.

## VII. 結 論

童子石은 濟州島 全域에 分布한다. 序에서 밝혔듯이 漢拏山를 中心으로 한



東西地方에서 多少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적으로 세워지는 地點과 方向을 볼 것 같으면 동쪽지방은 보편적으로 산담에서 1m 가량 떨어져 있는 것이 보통인데 서쪽인 경우는 산담과 거의 붙어있을 정도로 가깝게 세워지고 있다. 東北 西南쪽에는 2基가 마주보고 서 있는데 西北方인 경우는 2基가 무덤을 향하여 서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年代는 아직까지의 調査에 依하면 表善里 童子石-1인 경우 1600年代 中期로 나타나고 있으며, 西歸浦市 童子石-1인 경우 1900年代 初期로 나타나고 있다. 보편적으로 1700~1800年代의 것들이 많다.

童子石에서 가장 키가 큰 것으로는 德修里 童子石으로 96.0cm 정도이며, 가장 작은 것으로는 三陽洞 童子石으로 33.0cm이다.

童子石이 있는 墓에는 산담이 둘러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材質들은 모두 濟州産 多孔質 玄武岩 및 粗面質 玄武岩을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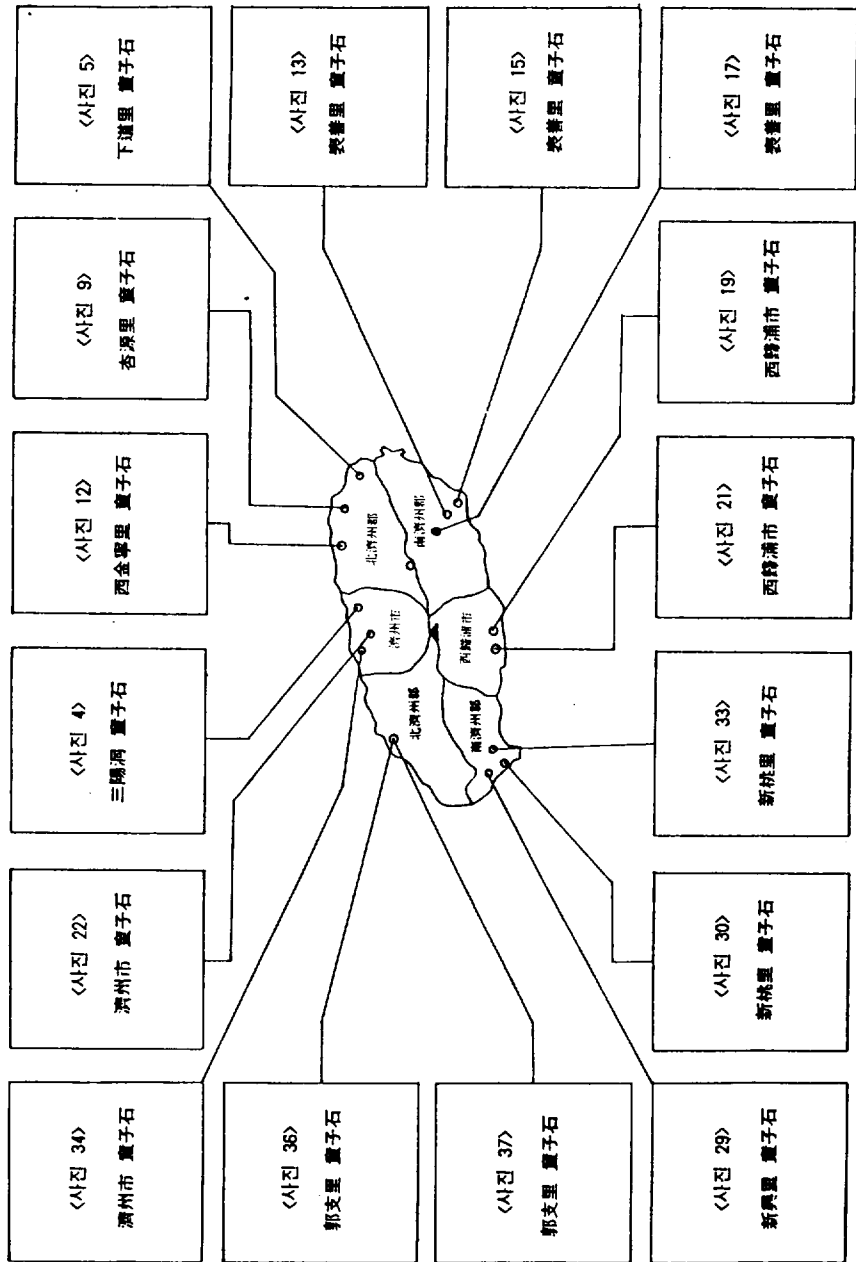
男女나 階級的 區分없이 세워져 있다.

童子石은 貴族的 保護의 石像이 아니고, 庶民의 慰勞的인 石像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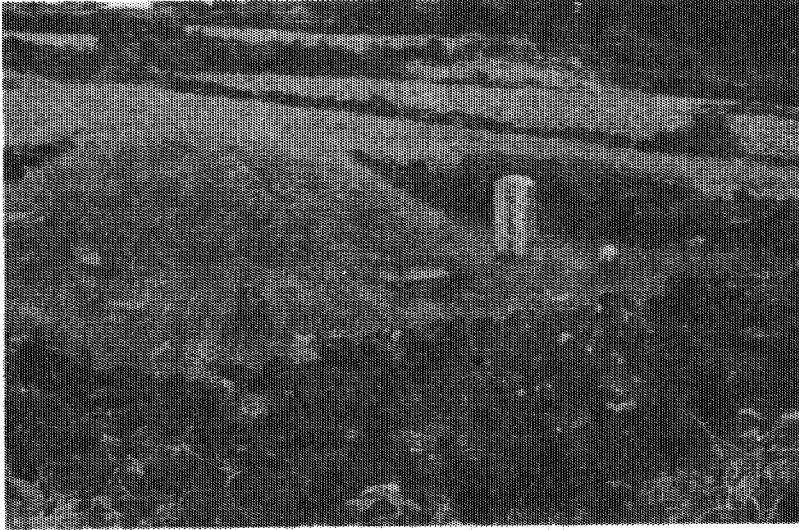
童子石은 濟州島人들의 精神的 產物이다.

童子石이 만들어지는 곳에서는 庶民들의 自作이 있었고 세워지는 곳에는 男女나 階級的 區分이 없었다. 推測에 依하면 500餘基 이상 盜難 혹은 他 地域으로 유출되었다고 본다. 調査 도중에 없어져버린 童子石이 있는가 하면 痕蹟만 남기고 없어진 것도 있었다. 아직도 島內에는 1,000餘基 이상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이러한 童子石은 앞으로 保護되어야 할 것이며 많은 研究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本稿에서는 基礎的 調査에 置重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앞으로 童子石의 信仰的인 面과 他 地域과의 比較 및 製作方法에 대한 研究等 미흡한 部分에 대해서도 많이 研究 되어야할 것이다.



濟州島 童子石 形態 分布圖 (사진참조)



〈사진 1〉 童子石과 墓



〈사진 2〉 童子石과 墓의 近景



〈사진 3〉 三陽洞 童子石 (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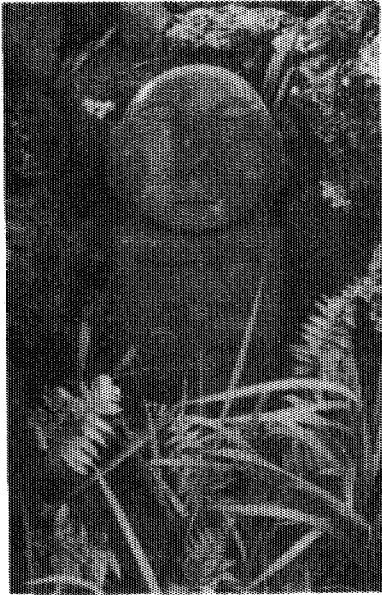
〈사진 4〉 三陽洞 童子石 (右)



〈사진 5〉 下道里 童子石 -1(左)



〈사진 6〉 下道里 童子石 -1(右)



〈사진 7〉 下道里 童子石 -2(左)



〈사진 8〉 下道里 童子石 -2(右)



〈사진 9〉 杏源里 童子石 (左)



〈사진 10〉 杏源里 童子石 (右)



〈사진 11〉 西金寧里 童子石 (左)



〈사진 12〉 西金寧里 童子石 (右)



〈사진 13〉 表善寧里 童子石 -1 (左)



〈사진 14〉 表善里 童子石 -2(左)



〈사진 15〉 表善里 童子石 -2(右)



〈사진 16〉 表善里 童子石 -3(左)



〈사진 17〉 表善里 童子石 -3(右)





<사진 18> 西歸浦市 童子石 -1(左)



<사진 19> 西歸浦市 童子石 -1(右)



<사진 20> 西歸浦市 童子石 -2(左)



<사진 21> 西歸浦市 童子石 -2(右)





〈사진 22〉 濟州市 童子石 (左)



〈사진 23〉 濟州市 童子石 (右)



〈사진 24〉 新昌里 童子石 -1 (左)



〈사진 25〉 新昌里 童子石 -1 (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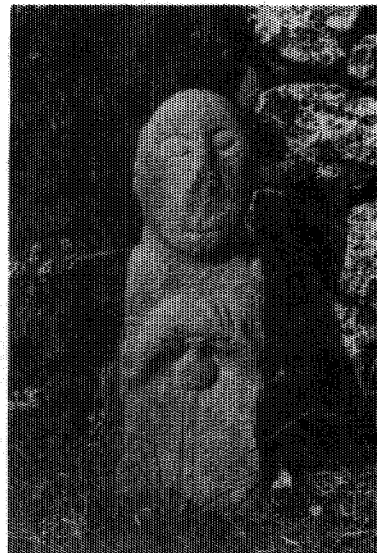
〈사진 26〉 新島里 童子石 -2(左)



〈사진 27〉 新島里 童子石 -2(右)



〈사진 28〉 新島里 童子石 -3 (左)



〈사진 29〉 新島里 童子石 -3 (右)



〈사진 30〉 新桃里 童子石 -1(左)



〈사진 31〉 新桃里 童子石 -1(右)



〈사진 32〉 新桃里 童子石 -2(左)



〈사진 33〉 新桃里 童子石 -2(右)



〈사진 34〉 濟州市 童子石 (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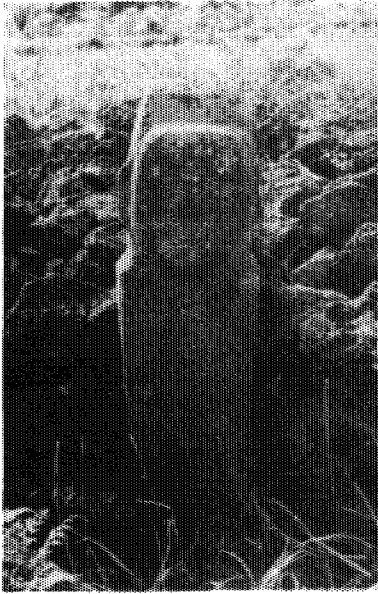
〈사진 35〉 濟州市 童子石 (右)



〈사진 36〉 郭支里 童子石 (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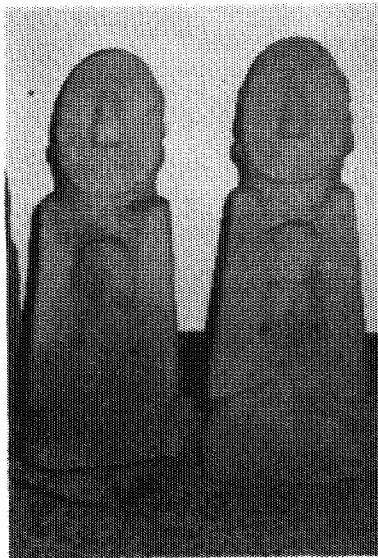
〈사진 37〉 郭支里 童子石 (右)



〈사진 38〉 德水里 童子石 (左)



〈사진 39〉 德水里 童子石 (右)



〈사진 40〉 濟州大學校博物館 童子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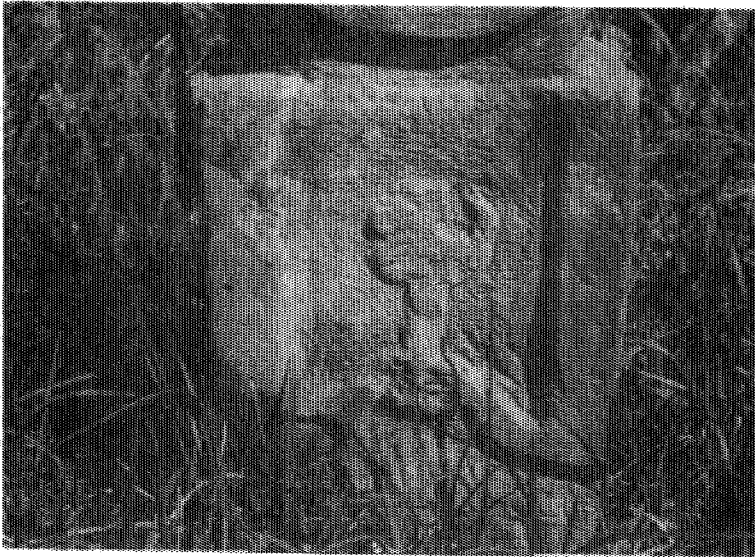


〈사진 41〉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童子石





〈사진 42〉 꽃



〈사진 43〉 둥근모양의 물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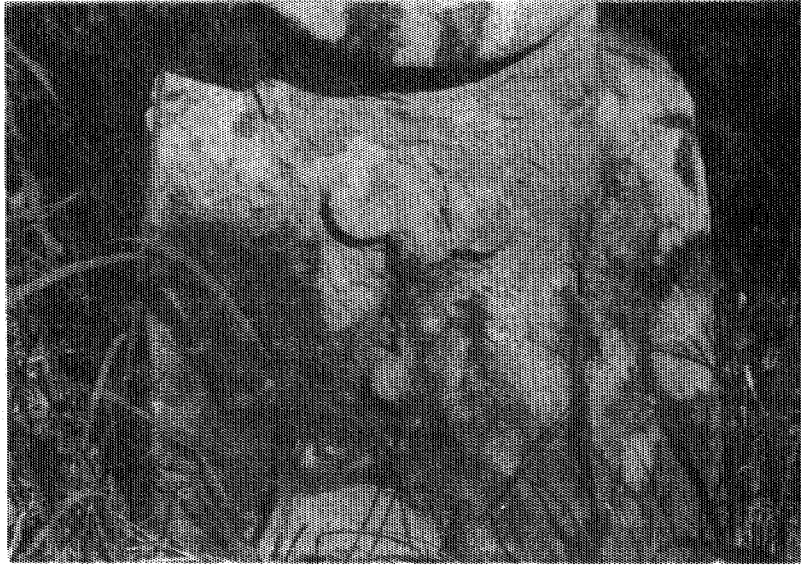
濟州島의 童子石 研究



〈사진 44〉 꽃봉오리



〈사진 45〉 잔



〈사진 46〉 밧줄모양의 돌건



〈사진 47〉 “一”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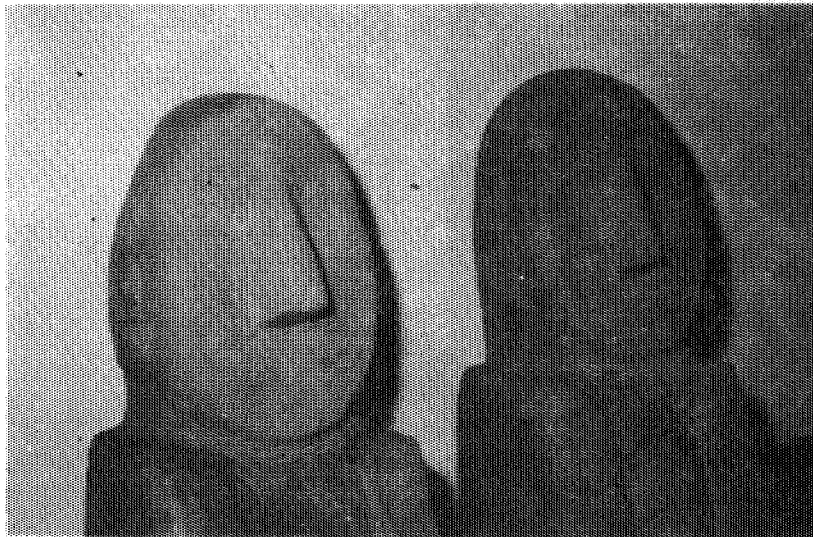
濟州島の 童子石 研究



〈사진 48〉 表善里 童子石  
(콧구멍 腫여있음)



〈사진 49〉 濟州大學校 博物館  
童子石 (술병구멍)



〈사진 50〉 濟州大學校 博物館 所藏 童子石 (얼굴에 코만 있음)



〈사진 51〉 童子石의 머리모양



〈사진 52〉 童子石의 머리모양



〈사진 53〉 童子石의 側面



〈사진 54〉 濟州大學校博物館 童子石